

# 24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출애굽기 16장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구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제육 일에는 두 배의 양식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진 밖으로 나가 보니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작은 것이 땅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진 밖으로 나가 보니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땅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고 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어들였고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육 일에 백성이 양식을 거두러 나갔다가 평소의 두 배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세 : 하나님께서 제육 일에는 두 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오늘 먹은 나머지를 내일 아침까지 보관하여라.

성경 암송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말한 대로 먹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보관하였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 : 오늘은 어제 거두어 먹고 남은 만나를 먹어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마라. 육 일 동안은 양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양식이 없으리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기 때문에 제육 일에 이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니 너희는 제 칠 일에는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백성은 제칠 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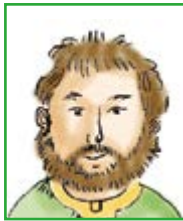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만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어 하나님은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시편 78:23~25)



다음 그림들은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보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알려 주세요.

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어야지.



② 내일은 바쁘니까 오늘 많이 거두어 보관해 두어야지.



③ 내일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소의 두 배를 거두어야지.



④ 오늘은 안식일이니 오전에 쉬고 오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겠다.



번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번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주실 거면 그냥 주실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만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야?



위의 친구에게 하나님께 만나를 주신 중요한 이유를 출애굽기 16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찾아 쓰고 보여 주세요.

---

---

만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는 법을 주시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해 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 힘듭니다.

내 영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 힘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 쉽습니다.

### 콩나물에 계속 물을 붓는 이유

콩나물 키우는 시루에 콩나물 콩을 넣고 물을 주면 물이 모두 시루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콩나물 콩에 물을 주면 어느새 콩나물 콩은 콩나물로 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 콩이 물을 조금씩 흡수하여 자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다음 빈칸에 구체적으로 성경말씀을 어떻게 읽을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써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 읽는 것을 항상 점검하세요.

### 나의 성경말씀 읽기 결심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



■■■에 자기 옆에 두고 ■■■■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신명기 17:19)



## 예 화



### 잃어버린 밥값

한 가난한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돈을 모아 배표를 사고 약간의 돈밖에 없던 그는 도저히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른 빵조각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는데 향해 기간을 그렇게 견뎌나가는 것은 그 청년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침, 더 이상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한 그는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돈이 없지만 너무 배가 고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산 배표에는 이미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난

선생님난